

#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I. 전반적 상황	V. 통교기록의 감소와 그 실태 : 12세기
II. 신라상인과 신라해적의 실체 : 9세기	VI. 進奉貿易과 초기왜구 : 13세기전반
III. 초기 '냉랭한' 관계 : 10세기~11세기 전반	VII. 과제와 전망
IV. 교역의 성황과 九州 在地社會·고려왕권 : 11세기 후반	

## I. 전반적 상황

일본에서의 麗日關係史에 관한 연구는 明治期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나 조선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와 비교하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元·高麗軍의 日本侵略(朝鮮史上의 甲戌·辛巳의 役,<sup>1)</sup> 日本史上의 文永·弘安의 役이나 前期倭寇로 장식된 13세기 후반 이후에 비하여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13세기 전반 이전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상태이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일본사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업적이며, 한국사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성과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대일 관계가 당시의 고려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거나 검토되지 못했으며, 그 점은 麗日關係史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 일본사 분야에서의 연구에 관해서도 專論이 적

1) 1274·81년의 對日戰役(대일전쟁)에 관한 한국사에서의 호칭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는 정해놓은 용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는 《고려사》 권31, 忠烈王世家 20년(1294) 正月 癸酉의 '甲戌辛巳兩年之役'이라고 하는 기재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森平2009].

고, 단편적인 논급이나 개설적인 서술에 그치는 경우, 혹은 일본의 대외교섭사를 日宋關係 중심으로 논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연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 이유로는 다른 시대에 비해 현저한 국가적 사건이 적고 사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처럼 주목받기 어려운 점, 또 현재는 일본에서 고려사 연구자가 적은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도 麗日關係史, 특히 13세기 전반 이전의 연구는 가장 저조한 연구분야 중 하나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一國史觀의 극복이 지향되고 海城史·海城交流史의 시각이 깊어짐에 따라 麗日關係史 연구에도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아 한국에서도 새로운 업적이 나오고 있으며, 근년에는 일본의 일본사연구자 측에서도 해외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研鑽을 뒷받침해 주는 착실한 기초 작업으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집[石井·川越 1996 ;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1999 ; 張 2004 ; 武田 2005 ; 김기섭 외 2005 ; 金 2006]이 韓日에서 잇따라 간행된 점도 크게 중시해야 한다. 특히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1999], 張東翼[2004], 김기섭 등[2005]의 작업은 한국사 연구자에 대하여 일본사료의 적극적 이용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일본어로 발표된 성과를 중심으로 10세기~13세기 전반의 麗日關係史에 관한 연구상황과 논점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반드시 專論이 아닌 저술의 단편적이거나 개설적인 언급이 검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상, 시계열에 따라 연구동향을 정리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그래서 주요한 논점마다 연구상황을 개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한 연구업적의 간행년은 모두 최근에 수록된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 初出年과 크게 다르고, 연구의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르지만, 初出 후에 대폭 개정되어 최종 원고를 참조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아서 편의상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初出 정보에 대해서는 말미의 문헌일람을 적절히 참조하기 바란다.

## Ⅱ. 신라상인과 신라해적의 실체 : 9세기

麗日관계의 역사적 성격을 찾는 데에는 그 전제 중의 하나로 9세기에 있어서 신라상

인과 신라해적의 실체에 관한 논의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8세기에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냉각화로 바뀌게 됨에 따라 9세기에는 신라상인이 大宰府 등 西日本の 연안지역을 찾아오게 된다. 청해진(현·한국 전라남도 완도)과 赤山(현·중국 산둥성 石島)을 거점으로 당-신라-일본간의 해상교통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張保臯(張寶高·弓福)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신라상인의 출신이나 실체에 대하여 연구 초기단계에서 森克己[1975b ; 2009h]는 신라 중앙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쌓은 지방관이나 호족의 무역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들은 신라 국내의 세력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혼란 속에서 당으로 유출 내지 진출해 간 사람들이 주된 담당자였다고 설명하게 된다[石井 1988 ; 山崎 2001b 등]. 단 그 활동은 신라 국내의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었고[山崎 2001b], 한반도 서남부 해민 세력과의 관계도 주의하게 된다[李炳魯 1993 ; 李成市 1997]. 신라의 域內 세력과 域外 세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금후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적어도 麗日關係의 역사적 전제라는 관점에서는 비록 조역이었다고 해도 주로 신라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들이 대일무역에 얼마나 관여하였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또한 山崎雅稔[2001a]가 당시의 羅日貿易을 ‘淸海鎮-鴻臚館貿易’으로 규정하고, 교역의 성립요건으로 唐 사회와 연결된 장보고라는 한 개인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張保臯가 신라왕권과 대립하여 841년에 살해되자 혼란의 파급을 경계한 일본정부는 大宰府 鴻臚館을 무대로 하는 무역에서 신라인을 배제하였고, 이를 대신해서 당 상인이 진출해 온다. 그리하여 신라상인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적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山崎 2001b], 生田滋[1991]는 이 무렵 山陰이나 北陸에 모습을 나타낸 신라상인에 대하여 鴻臚館 무역에서 배제된 신라상인의 활동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唐 상인으로 불리는 자들 중에는 在唐 신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측에서도 그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본국의 신라상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山崎 2001a ; 渡邊 2003 ; 榎本 2007b].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張保臯 휘하에 있어서 신라 국내의 상업세력의 실체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蒲生京子[1979]가 선구적인 張保臯 연구에서 제기하였듯이 張保臯와 그 후의 해상세력의 계보관계가 반드시 명료하지 않다는 신중한 자세도 존중해야 한다. 또 榎本涉[2007b]은 신라상인의 소멸에 대하여 고려의 탄생에 따른 집권화의 영향을 지적하지만, 고려 초기의 ‘비집권적’인 정치상황으로 보아 바로 동의할 수는 없다.

9세기에 일본 연안을 습격했던 신라해적에 대해서, 일찍이 森克己[1975ab; 2009a]는

지방정치의 혼란을 틈탄 신라의 지방관이나 ‘不逞新羅人’의 활동 등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국적으로는 지방사회의 혼란에 기인한다고 해도 시기적인 양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세기 초에 對馬나 小近嶋를 위협했던 신라해적은 張保臯 등장 배경이 되기도 했던 신라의 기근이나 치안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生田 1991], 張保臯 살해 후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해적사건은 鴻臚館 무역에서 배제된 신라상인[生田 1991 ; 山崎 2001b]이나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군소세력[渡邊 2003]의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9세기 말의 해적사건에 대해서는 신라왕권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濱田 2002], 生田滋[1991]는 신라정부가 스스로 ‘해적의 대두목’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石井正敏[2001]은 관계 사료를 조사하고 이를 부정했으며, 신라정부의 가림주구에 견딜 수 없게 되었던 민중의 활동으로 본다. 또 山内晋次[2003b]는 石井의 사료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라 왕권을 해적의 주체로 보는 견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당시 대두했던 지방 호족의 관여를 추측하였다.

지방호족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후삼국의 주인공인 王建이나 甄萱뿐만 아니라, 진주 지방의 王逢規가 10세기 초에 對中 통교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 일본에 있어서 신라상인, 신라해적의 활동이 신라말·고려초의 호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후술하듯이 초기 麗日 통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Ⅲ. 초기의 ‘냉랭한’ 관계 : 10세기~11세기 전반

10세기 초, 건국 후 얼마되지 않아 高麗와 後百濟는 활발한 대외통교를 전개했는데, 이 때의 대일교섭에 대해서는 靑山公亮[1955a]과 中村榮孝[1965]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두 연구자는 고려의 對日遣使를 937년과 939년 2회로 보았으나, 지금은 940년에도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石上1982 ; 森克己2009h].

이들 대일통교는 후백제나 고려의 ‘조공’ 제의를 일본측이 거절함으로써 좌절되었고, 그 후 정부 차원의 정상적인 통교관계는 결국 성립하지 않았다. 종래 이것은 平安시대 일본 외교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石上英一[1982]은 그것이 주변 세계에 대한 무지·무관심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한반도의 혼란·동요가 국내에 파급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고립정책이었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일본의 외교대응을 공문서의 授受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渡邊誠[2007]도 일본측이 주변국의 접근에 대하여 무시·묵살하지 않고 알아서 대응(문서의 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石上說은 일본측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조공’이라는 통교자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통교를 거절하였던 것에서도 補強되지만, 이에 대하여 南基鶴[2003]은 ‘조공’이라는 사료표현이 일본측의 조작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일본의 입장과 저축되는 고려측의 대국의식이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였다.

한편, 당시 일본이 고려를 신라의 후계국으로 인식하고 신라와의 외교마찰과 해적 피해의 경험에서 일어난 ‘敵國’ 의식을 고려로 돌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森公章[2008]은 일본이 고려와의 관계형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으로 9세기 후반 이후의 한반도 사회의 혼란에 더하여 신라해적의 영향을 지적한다. 과거의 기억과 동시대의 정세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일본의 외교대응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과 현실의 복합작용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가 일본측의 외교대응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石井正敏[2000]은 997년의 고려 牒狀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일본측의 대응, 그리고 고려해적 誤報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국의식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한반도를 습격하였다고 추정되는 일본해적의 행위에 대하여 고려측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염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渡邊誠[2007]은 당시 거란에게 책봉을 받은 고려로서는 일본에 우호관계를 구하는 의미가 희박하며, 해적문제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추측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통교를 거절할 때 문서의 不備나 자국의 존엄 등 이유를 앞세운 것은 상대방부터 모멸받지 않겠다는 의식, 즉 자국의 약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그것을 간파당하지 않으려는 허세이며, 적국의식이란 그러한 심리와 표리를 이루는 현상으로 파악한다.

다만 997년의 고려첩장 사건을 둘러싼 국제상황에 대해서, 당시 고려와 거란은 형식상의 종속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립국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려정부가 이 시점에서 대일교섭을 시도하였던 것이라면 관계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란대책을 염두에 두면서 연계를 모색하였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서에 나타난 고려측의 대국의식을 일본측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南 2003] 문서에는 정중함을 뜻하는 書簡 형식인 啓를 채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森平 2009] 꼭 일본에 대한 우위의식을 단순히 과시하였다고만 할 수는 없다.

또 上川通夫[2007]는 이 시기의 일본 천태종에 있어서 일본 우위의식을 분석하고, 일본측이 甌越의 천태종 부흥의 실질적 공헌자인 고려가 아니라, 송의 천태종에 구애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고려에 대한 정치적 대항심 등으로 인해 고려를 목살했던 불교삼국사상과, 여기에 근거한 불교적 세계인식-인도를 사정거리에 포함하여 고려를 목살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972년에는 고려의 남원부·김해부에서의 遣使記錄이 일본측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방관의 행위[石井1987]로 보는 것이 꼭 합당한 것은 아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지방관 파견이 시작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을 실효지배한 호족의 자주적 통교일 가능성이 있다[森平 2008]. 이에 관하여 일찍이 호족의 대외활동과의 연속성이 주목된다. 확증은 없지만, 중앙정부의 변경통제가 약했던 당시 지방호족이 독자적으로 대외활동을 행할 의욕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한반도의 지방 세력에 의한 자주적인 대외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라기보다 그들이 바라던 이익이 고려 정부의 통치하에서 또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호족의 대외통교가 일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거기에 무엇을 원하였던 것인가, 그리고 초기의 고려정부가 주최한 대외통교가 국내 사회에 무엇을 초래하였는지가 중요해진다.

담당자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고려와 일본 사이에서 교역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고려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九州로 향했던 高麗國 交易使의 존재를 통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石上 1982 ; 森克己 2009h]. 전술한 997년의 고려첩장을 둘러싼 논의 중에도 양국을 왕래하는 상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또 ‘攝津勝尾寺緣起’에는 正曆 元年(990)에 ‘百濟國皇后’의 위탁으로 관음상을 봉납한 宋海商 周文德·楊仁紹의 일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宋商을 매개로 한 麗日通交가 10세기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原美和子[2002]에 의하면 이 설화에 보이는 宋商은 실제 인물이지만, 설화 자체는 勸進興行과 주변 주민과의 마찰을 수습하는 방편으로 長谷寺의 觀音靈驗譚-異域에서 온 仏像이 靈力を 발휘함-을 기초로, 13세기 중반 무렵 창출된 픽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설화를 10세기의 麗日通交의 실례로 들 수 없게 된다. 다만 고려 등 異域의 珍寶를 宋商이 가져왔다는 모티브가 실제의 역사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1세기 초에 九州를 습격한 刀伊(女眞海賊) 사건은 양국 관계의 일대 전환기로 인식된

다. 고려 수군의 일본인 포로 구출과 송환 과정에 대해서는 池内宏[1934 ; 1979]과 森克己[2009h]의 논고가 있다. 또 근년 石井正敏[2006]은 여진의 포로가 되었던 일본인 여성의 공술기록에 근거하여 고려 병선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森克己[1975ab ; 2008 ; 2009gh]는 고려측의 정중한 대응이 일본의 대고려 자세의 유연화를 가져왔고, 그 후 왕성한 교류인 송환과 通商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村井章介[1996]는 이 사건을 둘러싼 일본측의 고려 군사력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고 고려에 대하여 여전히 갖고 있는 의구심, ‘적국’ 신라와 연결짓는 인식, 平安 귀족의 국제감각의 퇴영성과 폐쇄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石井正敏[2000]도 일본에 있어서 고려에 대한 경계심은 刀伊사건 후에도 변화하지 않으며, 중앙·지방을 불문한 귀족층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刀伊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교섭이 표면상 우호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중요할 것이다[森公章 2008]. 또 고려측의 우호 자세도 거란과의 항쟁을 배경으로 하는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南 2003]. 단, 山内晋次[2003a]가 지적한 것처럼 일본측의 우위의식과 경계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신라에 대한 경우처럼 극단적인 적대시나 분쟁 사항은 생기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교역의 성황과 九州 在地社會·고려왕권 : 11세기 후반

고려 사료에서 일본에서 오는 통교자는 11세기 후반에 들어서 갑자기 顯在化되고[青山 1955b] 12세기에 들어서면 다시 급속하게 자취를 감춘다. 이에 대하여 일본·송·고려의 무역관계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森克己[1975ac ; 2008 ; 2009abcdfg]는 성장한 일본 상인이 당시에는 자력으로 중국에 도항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곤란하였기 때문에 우선 고려로 진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12세기에 들어 중국 사료에서 ‘일본’상인의 도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려에 도항한 일본측 통교자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 시기, 大宰府의 무역관리체제가 와해되어 莊園을 무대로 日宋 간 밀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自說을 전제로, 九州의 莊園 관계자나 大宰府·博多의 상인이 해외 무역에 진출한 것이며[森克己 1975abc ; 2008 ; 2009cdfg],<sup>2)</sup> 그들 개개의 통교자에 의한

2) 다만 森克己 2008의 단계에서는 麗日무역의 주체로서 九州의 지방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사적인 물품 헌상(私獻)의 형식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한다[森克己 1975b]. 그리고 일본측이 고려산 물품과 동시에 송에서 도래한 생산품의 간접 수입을 중시하였다는 데에 주목하여[森克己 2008 ; 2009e] 송의 비단이 고려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건너오고, 일본의 수은·螺鈿·유황 등이 고려에서 송으로 들어가, 일본의 수은이 송에서 고려로 들어왔다는 물류의 삼국 연쇄관계를 지적하였다[森克己 2008 ; 2009g].

그러나 森의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원 내 밀무역설에 대해서는 11세기 단계에서는 大宰府의 무역관리가 기능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山内 2003c]. 장원의 대외교역 주체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지는데, 적어도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당시의 日宋무역은 송의 海商이 주도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12세기 이후의 중국 사료에 ‘일본’상인이 등장하는 것은 역학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되었으나, 榎本涉[2007a]은 이 ‘일본’상인의 실체는 宋商이며, 宋商이 日宋무역을 주도하는 상황은 12세기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1세기의 麗日통교를 12세기의 日宋무역의 전 단계로 단순히 자리매김할 수는 없게 된다.

일본측이 고려무역에 중국산 물품의 간접수입을 기대하였다는 점도, 판명된 몇 안되는 사례로부터 상황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稻葉岩吉[1934]이 지적한 차나 약재를 비롯한 재래의 고려 물산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측 수출품에 대하여 三浦圭一[1993]은 고급 공예품의 존재에 주목하여, 조공형식을 취한 교역이 大宰府 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산 장소도 大宰府와 그 주변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고려 미술에 미친 영향도 지적하였다.

무역 형식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私獻’이라는 점을 드는 것만으로는 교역의 정치적 의미가 간과된다는 山内晋次[2003d]의 비판이 있다. 山内는 당시의 일본·동남아시아·고려의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정치권력과 국제무역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거기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무역항(禮成港·博多 등)과 상인에 대한 관리·통제, 貢進형식을 취하는 물품거래가 권력층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나 대외자세를 장식하여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 또한 상인의 정치·외교상의 역할(문서·정보의 전달, 사절의 탑재, 주문품의 조달, 국가의 레의 참가) 등 교역활동에 부수되는 정치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山内の 논의의 전제 중 하나로서 奥村周司[1979 ; 1982]가 지적한 ‘八關會적 질서’가 있다. 고려의 국가적 제례인 팔관회의 國王朝賀儀禮에는 宋商·女眞·耽羅 등 異域 사람들이 참가하고, 고려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질서가 표현되었는데, 11세기 후반에는 그 자

리에 일본의 통교자가 참가한 케이스도 있으며, 奥村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이러한 정치질서에 포섭되는 존재였다고 지적하였다. 또 奥村[1985]은 고려 文宗 때 일본에 의사를 초청했던 사건을 검토하고 일본에 대한 고려의 대국의식이 외교문서의 형식·내용에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대일통교가 실패함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재인식되고, 이후에 성립한 팔관회의 儀注에는 일본이 조하례의 참가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奥村의 연구는 고려사 연구의 입장에서 대일관계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했던 몇 안 되는 논고로서 귀중하다.

틀림없이 고려는 군주를 천자·황제에 견주는 등 자존의 자세가 한국 역대왕조 중에서도 두드러졌던 존재였다. 그러나 盧明鎬[1997 ; 1999]에 의하면, 그 세계관은 복수의 천하의 병존을 상정하는 ‘다원적 천하관’이 주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국을 天子國·皇帝國에 견주는 자존의식이 바로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적어도 개별 통교자에 대한 자세가 그 배경에 있는 정권·민족 전체에 대한 인식까지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다[森平 2007].

위에서 서술한 의사초청 사건에 대해서는 田島公[1991]이 전말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의 大江匡房의 답서 起草에 대해서는 文學史의 입장에서 小峯和明[2006a]이 논하고 있다. 또 일본측이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青山公亮[1955a]이 ‘철저한 불간섭주의’라고 평했듯이 일본외교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渡邊誠[2007]은 표면상·형식상의 거절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시해야 할 것은 교역을 통한 왕래의 盛況과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부재라는 두 개의 국면이 병존했다는 점일 것이다[森公章 2008].

田村洋幸[1993]은 일본 통교자는 조선시대의 서계와 같은 書狀을 휴대했다고 추측했는데, 이 점은 일본측 통교주체와 통교형태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통교주체에 대하여 山内晋次[2003a]는 對馬·壹岐나 九州 북부지역의 在廳官人層(재지 호족 출신으로 관아의 무역관리 기구에 종사하면서 스스로도 무역에 관여)이나 府官·在廳官人和 연결된 상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宋商의 존재이다. 日宋무역에서는 이것을 주도한 漢人海商의 활동이 鴻臚館을 무대로 하는 ‘물가(둔치)’ 무역에서 博多 등 일본측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장기 체재하는 ‘住蕃’무역으로 발전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上記의 의사초청사건에서도 양국을 중개하는 王則貞이라는 ‘일본’상인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太宰府 觀世音寺의 十一面觀音像墨書銘에 ‘府老’로 이

름을 남긴 王則宗의 일족으로 생각되며[門田見 1985], 중국계 일족이 토착화하여 大宰府나 그 주변의 권력기구에 침투하여 대외무역에 종사하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龜井 1995 ; 山內 2003a].

이와 같은 중국계 상인이 麗日무역에도 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요성은 일찍이 田村洋幸[1993]도 언급했지만, 原美和子[1999 ; 2006]는 일본에 거점을 가진 漢人海商이 日宋貿易과 동시에 麗日交易에도 진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찍이 森克己[2009e]는 日宋貿易과 麗宋貿易을 담당한 宋商은 별개로 전문화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으나, 原은 기회가 있으면 商圈을 확대해 가는 해상의 움직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義天版 高麗佛典의 일본수입을 宋商이 중개한 점에 주목하여, 佛典과 같은 귀중품의 수입이나 외교문서의 전달과 같은 특수한 국면에서는 宋商이 우위의 정보수집·전달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무역활동의 계층성을 지적하였다.

麗日通交의 경로에 대해서 山內晋次[2003a]는 무역의 성행과 동시에 관청을 통해 표류민의 송환이 활발하게 행해진 것에 주목하여, 大宰府-對馬라인이 창구가 되어 金州로의 송환이 이루어졌고, 고려에서는 金州의 東南海船兵都部署에 의해 중앙으로 전해진 점을 지적하였다. 이 東南海船兵都部署는 12세기에는 慶尙道按察使로 개편되었는데, 對日창구의 기능은 여기에 계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近藤 2009]. 금후에는 일본과의 교역이나 외교절충에 있어 金州나 東南海船兵都部署(경상도 안찰사)의 장소적 성격에 대해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港市論의 성과를 참고하고, 또 조선전기의 삼포형성의 前史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류민 송환이나 교역을 둘러싼 麗日간의 주요한 접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對馬島이다. 山內[2003a]도 對馬와 고려 사이에서 빈번하고 밀접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의하고 있는데, 일본측 사료에는 당시 고려와 교역한 지는 오로지 對馬島人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佐伯弘次[1990]는 麗日貿易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對馬에 주목하여 현지 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형태를 지적하고 있으며, 小峯和明[2006b]은 당시 對馬의 은 채굴에 고려 인부가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고려에 대한 고급 공예품의 수출이라는 도식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田村洋幸[1993]은 博多지역의 상인은 고급 2차 제품, 쓰시마 사람들이 해산물 등 현지의 1차 생산품을 수출한다는 지역성과도 연결되는 계층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전술한 原美和子の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宋商과 그 이

외의 상업중사자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불교 교류에 대해서는 의천의 續藏經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불전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 주목되며, 大屋徳城[1988ab]의 기초적인 조사가 있다. 麗日관계사에서의 논점으로 는 森克己[2008; 2009g]도 선구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堀池春峯[1980]은 대륙 불교의 새로운 識見을 얻어 敎學의 진전을 도모하려는 일본 불교의 동향과 관련된 국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上川通夫[2007]는 이것을 심화시켜서 院政期에 있어서 遼佛敎의 참조에 토대를 둔 眞言密敎 중시 정책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横内裕人[2008a]은 續藏經 將來사업의 담당자를 상세히 분석하고, 南都系 密敎와 新華嚴의 전개와 관련하여 攝關家 중심의 日宋 불교 교류와 다른 대외 파이프를 원하는 院權力의 의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海商·大宰府를 매개로 한 물건만의 교류이며, 鎌倉불교의 顯密体制 성립의 伏流水가 된다고 하였다.<sup>3)</sup> 또 두 연구자의 연구를 토대로 한 保立道久[2004]는 院政期 종교 이데올로기의 국제적 성격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續藏經의 奉請이 攝關 정치기의 대외관계가 院權力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 - 금의 발흥에 수반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平安京과 大宰府를 보다 직접적으로 통괄하는 체제가 구축됨 - 에서 생겨난 현상이며, 平氏 정권의 등장과 그 후의 동란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전제의 하나라고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불교 교류는 院權力이나 宋商 등 주로 사회의 상위계층에 주도된 동향이지만, 稻葉岩吉[1934]이 소개한 《法華靈驗傳》의 東傳說話 - 거제도의 供辯에서 倭僧이 양도받아 博多 崇福寺로 가져옴 - 처럼 대한해협 연안 지역의 지역적인 움직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고려에서 상인 등이 來日하는 움직임은 사료적으로는 극히 미약하다. 이에 관련해서 森克己[1975b]는 고려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기구 아래에서는 지방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무역에 투자하거나 자립한 지방권력이 독자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여지는 없는 점,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상인이 해외로 나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 송·일본·大食에서 빈번하게 선박이 來航하기 때문에 고려의 민간상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 연구 측에서는 麗宋무역에 있어서 고려상인의 활약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통설은 李鎮漢[2005]과 榎本涉[2007a]에 의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조선시대에 비하여 고려의 중앙집권도는 낮고,

3) 또한 일본 중세 불교의 성립과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横内, 2008b]를 참조.

지방사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森이 지적한 첫 번째 요인은 고려 상인의 미미한 존재감을 설명하는 이유로서 반드시 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 V. 통교기록의 감소와 그 실태 : 12세기

12세기에 들어서면 麗日 간의 통교를 보여주는 사료가 급감한다. 靑山公亮[1955b]은 이러한 관계기사의 繁閑은 사실의 유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일본측의 요인에 대하여 森克己[1975ac ; 2009acfg]는 일본상인이 고려의 정치혼란에 따른 위협을 피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對宋 진출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다. 田村洋幸[1993]도 고려 안팎의 동요를 들었다. 또한 森克己[1975ad]는 원래 고려무역이 박리입을 들고 있으며, 三浦圭一[1993]도 日宋貿易의 발전에 따른 이윤 밸런스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고려측 요인에 대해서도 쌍방의 경제 격차를 염려한 고려정부가 무역을 축소했다는 견해가 있다[田村 1967].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李頴[1999a]은 고려의 대송무역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고려 국내의 “혼란”이 대일무역 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여진의 대두로 인하여 북방의 정세가 불안해지던 중, 1093년 일본·송 양국의 수상한 배가 王都 근해에 출현한 사건(李頴은 日遼貿易船으로 추정)을 계기로 일본 商客의 상경이 금지되었으며, 더구나 1079년의 의사초청 교섭의 차질에 따라 대일관계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쳐서 일본의 來航者에 대해서는 金州에서 응접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방침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 결과 무역 부진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來航 수도 감소하였겠지만, 변경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료가 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사료상의 상황이 반드시 실태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麗日通交를 증명할 자료로서 한국의 불탑 안에서 고려시대 유물과 함께 내장된 南洋產 조개와 11·12세기 일본의 瓦當문양에 보이는 고려의 영향을 들고 있다.

李頴의 견해에 대하여 濱中昇[2000]은 고려 국내의 혼란이 麗日貿易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李頴이 제시한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기의 麗日貿易의 물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통설을 뒤집기에는 논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 橋本雄[2002]도 접촉 장소가 金州에 한정된 것이 기록의 감소

에 관계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11세기에 일본의 來航者에 관한 정보는 종종 金州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보고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일본’ 상객의 상경이 금지되었다는 明證도 없다.

李頴은 당시 麗日通交가 두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하는 일환으로 한반도와 耽羅가 日宋 통교의 항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sup>4)</sup> 麗日통교의 사실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濱中昇[2000]이나 橋本雄[2002]은 관계 사료의 독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관련하여 榎本涉[2008]은 일본 승려의 渡宋記錄에 보이는 고려관계 기사에 주목하여 오로지 표류·海難의 장소로 이미지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前代에 비하여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인상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지만, 李頴이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겨진 기록에서 얻은 느낌에 불과하다는 점은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세기 후반의 源平抗爭 중에 藤原親光이 對馬에서 고려로 망명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川添昭二[1988]는 11세기 이래 계속된 對馬와 고려의 밀접한 관계가 배경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13세기 전반의 사료에는 한반도 남해안에서 쓰시마인이 고려정부의 통제의 틀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정부기록에 남기 어려운 지방·민간 차원의 통교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12세기 중반(고려毅宗朝) 단계에서 일본의 통교자는 여전히 고려왕권의 자존의식을 만족시키는 來貢者로서 존재하였고, 이 점은 후술할 進奉貿易의 문제와 관련하여 李頴[1999b]도 주목하고 있다.<sup>5)</sup> 또 高橋昌明[2007]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平清盛의 福原別莊 조영에 고려의 도성 설계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추측한다.

## VI. 進奉貿易과 초기왜구 : 13세기 전반

13세기 전반에는 일본 통교자의 고려에 대한 ‘進奉’이 고려의 문서 사료 속에서 확인되는 한편, 이른바 초기왜구가 발생하여 麗日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倭’라는 해적에 대하여 아직까지 成語·역사적 개념으로 굳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14세기 이후의 ‘왜구’와 동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田中 1982),

4) 日宋 교통에서의 탐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森克己[2009f]가 선구적으로 논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이 무렵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팔관회의 儀注에서 조하례의 참석자로서 일본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성격적인 연속성에 주목하여 ‘初發期の 왜구’로 파악할 수 있다는 村井章介[1988]의 견해가 정착되고 있다.

‘進奉’에 대해서 青山公亮[1955b]은 사실상 조공과 다름없으며, 일본의 고려 통교 전반에 걸친 형식으로 파악하였다.<sup>6)</sup> 그리고 13세기에는 고려가 통교를 환영하지 않고 교역을 축소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왜구가 발생했다고 하였다[青山 1955c].

한편 森克己[1975d]는 鎌倉幕府가 자유로운 민간무역을 허락한 결과, 前代 이래의 私獻貿易이 계승되었고, 그 가운데 對馬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역이 ‘進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일본상인이 철수하는 것과 교대로 왜구가 등장했던 점에 주목한다. 그 요인에 대하여 森은 고려의 정세불안 속에서 무장상인이 등장한 결과라거나[森 2008], 단순히 고려의 혼란에 편승했다고 서술한 경우도 있지만[森 2009cg], 구체적으로는 일본·고려 양국 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되던 중, 12세기초 壹岐에서 나타난 해적 행위(高麗 仏典을 가져오던 商船이 습격 받음)의 흐름이 12세기 중반 이후 고려로 향했다고 설명하고(1152년 淸原是包事件, 13세기의 왜구), 그 주체로서 莊官武士에 주목하였다[森 1975c]. 그리고 고려는 對馬를 왜구의 발원지로 보고 금압을 요구하면서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비랐던 것이 표류선 송환 사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森 1975d].

田村洋幸[1967]은 麗日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11세기말부터 麗日貿易이 쇠퇴했지만, 大宰府 관리를 비롯한 지방호족은 중앙과의 대립을 무릅쓰고 무역확대를 希求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고려와 교섭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松浦나 對馬의 土豪가 생활의 필요를 위해 일으켰던 왜구사건이며, 고려는 大宰小貳 武藤氏와 교섭하여 일본 측의 여러 세력을 억누르고, 武藤氏와는 歲遣船에 의한 進奉 형식으로 교역하면서 이것을 되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일본의 고려 수출품이 고급품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서 왜구의 약탈품이 미곡 등 生活財라는 이해를 근거로 상인과 왜구는 표리일체가 아니라 계층적·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는 田村[1993]의 지적과 연결된다[田村 1993]. 다만 田村 자신이 지적하였듯이 교역주체 자체에 계층성이 있었다면 對馬·壹岐·松浦 등지에서는 고려에 있어서 생활재의 교역과 약탈행위가 표리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川添昭二[1975; 1996]는 초기왜구에 대한 일본측 권력의 대응에 대하여 논급하고, 1226년에 御家人 武藤資賴가 大宰少貳로 취임하여 鎌倉幕府의 외교·무역에 대한 관여가 시작되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조정에서도 왜구로 인한 대외적 위기

6) 田中健夫[1975]도 마찬가지이다.

의식이 있었던 것, 1245~46년경 武藤氏의 의향을 받은 被官 宗氏가 對馬로 들어가서 토호 阿比留씨를 토벌했다는 것은 왜구 금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1263년에 고려를 방문한 일본의 ‘진봉’선은 武藤氏의 歲遣船이며, 1227년의 왜구 금압 교섭을 계기로 武藤氏가 고려와 맺은 ‘修好互市’가 시발점이라는 것, 그러나 그 교역은 고려의 낮은 생산력과 상업의 미발달, 그리고 왜구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하여 고려측에서는 억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 등을 논하고 있다.

大山喬平[1984]도 大宰府를 장악했던 武藤氏가 進奉船으로 고려와 修好互市를 행했다고 파악했는데,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고 수행된 왜구대책은 막부의 외교·무역권의 장악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佐伯弘次[1992]는 초기왜구의 주체를 對馬나 松浦의 영주·민중으로 파악하고, 京人이 日宋貿易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하면서 麗日貿易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武藤씨가 고려의 왜구 금압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려무역을 추진했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한편, 李頴[1999]은 일본측의 ‘진봉’은 사적인 상업행위가 아니라 항상적이고 準公의 인 관계이며 그 직접적인 주체는 對馬였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고려 내부에서의 진봉의례 정비과정을 검토하고, 또 11세기 말까지는 고려와 對馬 사이에 準公의인 관계로서의 ‘진봉’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며 12세기 毅宗代에 시발점을 찾았다. 또 ‘禮制’라고도 하는 그 제도화된 관계에는 大宰府도 관여했을 것이며, 나아가 大宰府를 관리하는 平氏정권이나 후대의 鎌倉幕府도 배후에서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였다.

李頴의 학설에 대하여 濱中昇[2000]은 고려 내부의 ‘進奉儀禮’에 관한 이해, 또 일본측의 주체가 ‘進奉’을 공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橋本雄[2002]도 李頴의 설에 대하여 논증 부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례·부정기적인 ‘진봉’ 혹은 ‘진봉’의 틀 속에서 벗어난 ‘互市’의 존재를 증시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진봉’에 대해서는 또한 山内晋次[2003a]가 11세기 이래의 관계를 배경으로 이 무렵 對馬島司와 고려 사이에서 탄생했던 특수한 통교관계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조공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고려측에서는 對馬에 대하여 耽羅와 동일한 外臣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田中健夫[1961]는 초기왜구의 발생배경으로 몽고 침공에 쫓긴 고려측의 통교 거부를 들었다. 또한 溝川晃司[2003]는 13세기 초에는 對馬와 玄海灘 타지역 사이에서 고려에 대한 ‘진봉’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고, 덧붙여 일본측에 非禮가 있어 교역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활문제로 하는 對馬가 왜구를 일으켰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

해 武藤氏が ‘진봉’ 재개를 요청했다고 본다.<sup>7)</sup>

이상과 같이 ‘진봉’을 둘러싼 문제는 관계된 일본측 주체, 前代 무역과의 연속성, 제도·관례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년에는 주체를 對馬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大宰府의 관여 또는 認知를 추측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들은 개별 사건에서 살필 수 있는 상황을 일반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원래 ‘進奉’이란 ‘아래’에서 ‘위’에 대한 進獻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당시는 중국에서도 통용하고 있었다. 麗日관계에 관한 용어로서는 13세기에만 확인되기 때문에 얼핏 이 시기에 특유한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용례는 모두 고려의 외교문서 속에 나타나는데 비하여, 12세기 이전 일본의 물품 ‘헌상’에 관한 사료는 2차적인 편찬기록 밖에 없으며, 동시대의 1차 사료 내지 이에 준하는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진봉’이라는 용어가 12세기 이전의 조공형식을 취한 麗日貿易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術語이며, 주체의 범위나 형식내용이 시기마다 변천하였을 가능성도 예상해 두어야 한다. 또한 당시 麗日貿易의 형태를 ‘進奉’으로 한정해도 좋은가 하는 橋本の 지적도 제도의 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통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제언으로 경청할만한 것이다.

한편, 초기왜구에 대해서는 上記와 같이 대다수의 경우 ‘진봉’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했는데, 비교적 사료가 많은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논하는 경우 관심이 對馬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壹岐·松浦 등 九州 북부지역 사회에 널리 그럴만한 소지가 있었던 점, 사회의 유동화라는 사태는 같은 시기에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났다는 점(해적의 존재, 소위 ‘南賊’의 봉기, 유민의 발생)을 고려하여, 麗日 양쪽에서 대한해협 연안 지역사회의 불안정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사료의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韓日 쌍방의 문헌에 錄文 형태로 남아 있는 고려의 외교문서가 주목되는데, 그 전문을 세밀하게 해석하는 기초작업은 부족하다. 大宰府에 왜구 금압을 요청했던 1227년의 고려 전라도 안찰사의牒을 분석한 近藤剛[2008]의 작업은 드문 성과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문서사료의 상세한 독해를 토대로 고려가 大宰府에 대하여 직접 교섭했던 이유는 왜구의 주체가 對馬의 관민일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고려측에서는 이 때 두 번에 걸쳐 사자를 파견했다고 지적한다.<sup>8)</sup>

7) 이 외에 초기왜구를 언급한 논고로는 [杉浦 1964]가 있다.

8) 그 밖의 문서사료에 관해서는 五島 靑方 문서 중 왜구관계 사료를 소개한 [長沼 1976], 초기왜구

## VII. 과제와 전망

10세기~13세기 전반의 麗日關係史에 관한 연구는 절대적인 사료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극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사료조차 치밀하고 전면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것은 특히 일본측에 남아 있는 사료에서 현저하다.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본사·한국사라는 연구 분야의 구분이 당연한 전제인 듯한 학계의 현상을 배경으로 일본사 연구자의 고려사에 대한 이해, 한국사 연구자의 일본사에 관한 이해에 아무래도 불충분한 점이 눈에 띄는 것이다. 麗日關係史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이러한 한계는 사료 독해능력의 레벨부터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이러한 ‘벽’을 넘어서려는 기운은 韓日 쌍방에서 차츰 싹트고 있다. 그것이 달성되고난 뒤에 비로소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전체적인 역사상황 속에서 麗日關係의 事象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근년의 연구를 통하여 명확해진 것은 동방 유라시아 규모의 시야의 중요성이다. 앞에서 麗日關係는 당시 일본의 대외관계를 日宋관계 중심으로 논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는데, 그것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麗日關係史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도에 결부되는 경우이다. 麗日關係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려면 오히려 宋, 高麗, 日本, 契丹, 女眞, 몽고, 西夏, 동남아시아 제국 등 여러 민족·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당시 동방 유라시아의 전반적인 동향에 주의하며 그 중에서 麗日關係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 현대적인 감각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민족의 구분과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 그 당시 경계지대의 지역사회의 상황에 더욱 더 철저하게 구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항구도시, 대한해협 연안지역, 海商이나 종교자 네트워크/커뮤니티에 대한 착안). 개인적인 견해로 麗日通交의 사료부족은 韓日 모두 중앙·지배층의 기록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그 해명이 麗日 간의 교역과 해적사건의 본질 이해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

문제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는 紙背 문서를 예로 든 [田島 2001]도 있다.

### 【참고문헌】

※ 初出 시의 제목이 다른 것과 복수의 初出 論문을 하나로 合編한 것도 있지만 모두 原題는 생략했다.

#### 【日本語】

- 青山公亮, 1955 《日麗交渉史の研究》(明治大學文學部)
- 青山公亮, 1955a <高麗よりの來牒に對する日本政府の態度> 青山1955/初出1934 《台湾教育》 昭和9年 1月號
- 青山公亮, 1955b <通商關係の一斑> 青山1955/初出1925 《白鳥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岩波書店)
- 青山公亮, 1955c <高宗朝及び元宗朝に於ける彼我の葛藤> 青山1955/初出1927 《史學雜誌》38-4
- 生田滋, 1991 <新羅の海賊> 《日本海と出雲世界-海と列島文化2》(小學館)
- 池内宏, 1934 《刀伊の入寇及び元寇》(岩波講座日本歴史)(岩波書店)
- 池内宏, 1979 <刀伊の賊-日本海に於ける海賊の横行> 同著 《滿鮮史研究》 中世1 吉川弘文館(復刻版) / 初版 1933 岡書院 / 初出 1926 《史林》 10-4
- 石井正敏, 1987 <日本と高麗> 日本アートセンター編 《海外視点日本歴史5 平安文化の開花》 ぎょうせい
- 石井正敏, 1988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間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 394
- 石井正敏, 2000 <日本・高麗關係に關する一考察-長徳3年(997)の高麗來襲説をめぐって>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アジア史における法と國家》(中央大學出版部)
- 石井正敏, 2001 <寛平六年の遣唐使計畫と新羅の海賊> 《アジア遊學》 26
- 石井正敏, 2006 <《小右記》所載<内藏石女等申文>にみえる高麗の兵船について> 《朝鮮學報》 198
- 石井正敏・川越泰博(編), 1996 《増補改訂 日中・日朝關係研究文獻目錄》(國書刊行會)
- 石上英一, 1982 <日本古代10世紀の外交> 井上光貞他編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東アジア世界の変貌》(學生社)
- 稻葉岩吉, 1934 《日麗關係》(岩波講座日本歴史)(岩波書店)
- 榎本涉, 2007a <宋代の<日本商人>の再検討> 同著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9~14世紀》(吉川弘文館) / 初出 2001 《史學雜誌》 110-2
- 榎本涉, 2007b <新羅海商と唐海商> 佐藤信・藤田覺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 榎本涉, 2008 <日宋・日元交通における高麗-佛教史料を素材として> 《中世港灣都市遺跡の立地・環境に關する日韓比較研究》 平成15~19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特定領域研究・特別研究促進費) 村井章介
- 大屋徳城, 1988a <寧樂佛教と高麗朝の佛教> 同著 《佛教史の諸問題》(大屋徳城著作選集6) 國書刊行會/初出 1939 《宗教研究》 102
- 大屋徳城, 1988b 《高麗續藏雕造攷》(大屋徳城著作選集7) 國書刊行會(復刻)/初版 1937年: 便利堂
- 大山喬平, 1984 <中世の日本と東アジア> 歴史學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 《講座日本史3-中世1》(東京大學出版會)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 奥村周司, 1982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仲冬八關會儀>および<迎北朝詔使儀>を中心とし

- て> 《歴史學研究》別冊特集〈民衆の生活・文化と變革主体〉
- 奥村周司, 1985 <醫師要請事件にみる高麗文宗朝の對日姿勢> 《朝鮮學報》117
- 門田見啓子, 1985 <大宰府の府老について(上)－在廳官人制における> 《九州史學》84
- 上川通夫, 2007 <中世佛教と<日本國>> 同著 《日本中世佛教形成史論》(校倉書房) / 初出 2001: 《日本史研究》463
- 龜井明德, 1995 <日宋貿易關係の展開> 《岩波講座日本通史6－古代5》(岩波書店)
-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阜の台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 川添昭二, 1975 <鎌倉時代の對外關係と文物の移入> 《岩波講座日本歴史6－中世2》(岩波書店)
- 川添昭二, 1988 <鎌倉初期の對外關係と博多> 箭内健次編 《鎖國日本と國際交流》上(吉川弘文館)
- 川添昭二, 1996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同著 《對外關係の史的展開》(文獻出版) / 初出 1992, 94 《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147, 156
- 小峯和明, 2006 《院政期文學論》(笠間書院)
- 小峯和明, 2006a <大江匡房の高麗返牒－述作と自讃> 小峯 2006 / 初出 1981 《中世文學研究》7
- 小峯和明, 2006b <<對馬貢銀記>の世界－異文化交流と地政學> 小峯 2006
- 近藤剛, 2008 <嘉祿・安貞期<高麗高宗代>の日本・高麗交渉について> 《朝鮮學報》207
- 近藤剛, 2009 <泰和6年(元久3・1206)對馬島宛高麗牒状にみえる「廉察使」について> 《中央史學》32
- 佐伯弘次, 1990 <國境の中世交渉史> 《海と列島文化3－玄界灘の島々》(小學館)
- 佐伯弘次, 1992 <海賊論>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海上の道》(東京大學出版會)
- 杉浦亮治, 1964 <アジアの中世－倭寇禁壓使節を通しての日麗關係> 《歴史研究》12 (愛知學芸大)
-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 1999 《對外關係史總合年表》(吉川弘文館)
- 高橋昌明, 2007 《平清盛 福原の夢》(講談社)
- 武田幸男(編譯), 2005 《高麗史日本伝－朝鮮正史日本伝2》(上/下)(岩波書店)
- 田島公, 1991 <海外との交渉> 橋本義彦編 《古文書の語る日本史2－平安》(筑摩書房)
- 田島公, 2001 <冷泉家旧藏本<長秋記>紙背文書に見える<高麗>・<渤海>・<東丹國>> 上横手雅敬編 《中世公武權力の構造と展開》(吉川弘文館)
- 田中健夫, 1961 《倭寇と勘合貿易》(至文堂)
- 田中健夫, 1975 <十四世紀以前における東アジア諸國との關係> 同著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 田中健夫, 1982 《倭寇－海の歴史》(教育社)
-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三和書房)
- 田村洋幸, 1993 <高麗における倭寇濫觴期以前の日麗通交> 《經濟經營論集》28-1
- 長沼賢海, 1976 <元寇と松浦宮> 同著 《日本海事史研究》(九州大學出版會) / 初出 1933 《史淵》7
- 中村榮孝, 1965 <後百濟王および高麗太祖の日本通使> 同著 《日鮮關係史の研究》上(吉川弘文館) / 初出 1927 《史學雜誌》38-8
- 南基鶴, 2003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 (村井章介 驛)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關する學際的研究》荒野泰典(研究代表) 平成12~1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基盤研究 A2) 荒野泰典 / 原載, 2000 《日本歴史研究》11
- 橋本雄, 2002 <書評: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758
- 濱田耕策, 2002 <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阜の清海鎮と海賊に關連して> 同著 《新羅國史の研究－東アジア史の視点から》(吉川弘文館) / 初出 1999 唐代史研究會編,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

- 家と地域》(刀水書房)
- 濱中昇, 2000 <書評: 李領著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評論》 603
- 原美和子, 1999 <宋代東アジアにおける海商の仲間關係と情報網> 《歴史評論》 592
- 原美和子, 2002 <勝尾寺緣起に見える宋海商について> 《學習院史學》 40
- 原美和子, 2006 <宋代海商の活動に關する一試論> 小野正敏・五味文彦・萩原三雄編 《中世の對外交流 - 場・ひと・技術》(高志書院)
- 保立道久, 2004 <院政期の國際關係と東アジア仏教史 - 上川通夫・横内裕人兩氏の仕事にふれて> 同著 《歴史學をみつめ直す》(校倉書房)
- 堀池春峰, 1980 <高麗版輸入の一樣相と觀世音寺> 同著 《南都仏教史の研究》 上(法藏館) / 初出 1957 《古代學》 6-2
- 三浦圭一, 1993 <十世紀 - 十三世紀の東アジア> 同著 《日本中世の地域と社會》(思文閣出版) / 初出 1970 《講座日本史》 2(東京大學出版會)
- 溝川晃司, 2003 <日麗關係の変質過程 - 關係惡化の経緯とその要因> 《國際日本學》 1
- 村井章介, 1988 <倭寇と朝鮮> 同著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 初出 1986 蔭維藻他編, 《東アジア世界史探究》(汲古書院)
- 村井章介, 1996 <1019年の女眞海賊と高麗・日本> 《朝鮮文化研究》 3
- 森克己, 1975 《續々日宋貿易の研究 - 森克己著作選集3》(國書刊行會)
- 森克己, 1975a <日本商船の高麗・宋への進出の端緒> 森 1975 / 初出 1963 《中央大學文學部紀要》 33
- 森克己, 1975b <日・宋と高麗との私獻貿易> 森 1975 / 初出 1959 《朝鮮學報》 14
- 森克己, 1975c <日宋麗交渉と倭寇の發生> 森 1975 / 初出 1965 《石田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石田博士古稀記念事業會
- 森克己, 1975d <鎌倉時代の日麗交渉> 森 1975 / 初出 1965 《朝鮮學報》 34
- 森克己, 2008 <我が能動的貿易の展開> 同著 《新訂日宋貿易の研究 - 新編森克己著作集1》(勉誠出版) / 新訂再版 1975(國書刊行會) / 初版 1948(國立書院)
- 森克己, 2009 《續日宋貿易の研究 - 新編森克己著作集2》(勉誠出版) / 初版 1975(國書刊行會)
- 森克己, 2009a <海路による東方貿易の展開> 森 2009 / 初出 1969 《東洋學術研究》 8-3
- 森克己, 2009b <日宋交通と海洋の自然的制約> 森 2009 / 初出 1937 《歴史教育》 12-5
- 森克己, 2009c <日宋交渉の發展過程> 森 2009 / 初出 1963 《歴史教育》 11-9
- 森克己, 2009d <日宋貿易に活躍した人々> 森 2009 / 初出 1964 日本歴史學會編, 《歴史と人物》(吉川弘文館)
- 森克己, 2009e <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 森 2009 / 初出 1956 《朝鮮學報》 9
- 森克己, 2009f <日宋交通と耽羅> 森 2009 / 初出 1961 《朝鮮學報》 21・22
- 森克己, 2009g <日宋麗連鎖關係の展開> 森 2009 / 初出 1949 《史淵》 41
- 森克己, 2009h <日麗交渉と刀伊賊の來寇> 森 2009 / 初出 1966 《朝鮮學報》 37・38
- 森公章, 2008 <古代日麗關係の形成と展開> 《海南史學》 46
- 森平雅彦, 2007 <朝鮮における王朝の自尊意識と國際關係 - 高麗の事例を中心に> 《九州大學21世紀 COEプログラム <東アジアと日本: 交流と変容> 統括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
- 森平雅彦, 2008 <日麗貿易> 大庭康時・佐伯弘次・菅波正人・田上勇一郎編 《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 森平雅彦, 2009 <13世紀前半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 - モンゴル官人との往復文書をめぐって>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編, 《몽고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景仁文化社)

- 山内晋次, 2003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 山内晋次, 2003a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山内 2003 / 初出 1990 《歴史科學》 122
- 山内晋次, 2003b <九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寇賊・叛亂をおもな素材として> 山内 2003 / 初出 1996 《歴史評論》 555
- 山内晋次, 2003c <莊園内密貿易説に關する疑問> 山内 2003 / 初出 1989 《歴史科學》 117 및 1994 《貿易陶磁研究》 14
- 山内晋次, 2003d <東アジア・東南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商と國家> 山内 2003 / 初出 1996 《歴史學研究》 681 및 1998 《新しい歴史學のために》 230・231
- 山崎雅稔, 2001a <承和の変と大宰大貳藤原衛四條起請> 《歴史學研究》 751
- 山崎雅稔, 2001b <九世紀日本の對外交易> 《アジア遊學》 26
- 横内裕人, 2008a <高麗續藏經と中世日本－院政期の東アジア世界觀> 同著 《日本中世の佛教と東アジア》(塙書房) / 初出 2002 《仏教史學研究》 45-1
- 横内裕人, 2008b <遼・高麗と日本佛教－研究史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6
-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正倉院の宝物がきたもうひとつの道》(青木書店)
- 李炳魯, 1993 <九世紀における <還シナ海貿易圈> の考察－張保臯と對日交易を中心に> 《神戸大學史學年報》 8
- 李領,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 李領, 1999a <院政期の日本・高麗交流に關する一考察> 李領 1999
- 李領, 1999b <中世前期の日本と高麗－進奉關係を中心として> 李領 1999 / 初出 1995 《地域文化研究》 8
- 渡邊誠, 2003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 渡邊誠, 2007 <平安貴族の對外意識と異國牒狀問題> 《歴史學研究》 823

### 【韓國語】

- 김기섭 외(編), 2005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혜안)
- 金徳原, 2006 《韓國中世日本史料集成》(景仁文化社) 塘瀝
- 李鎮漢, 2005 <高麗前期 對外貿易과 그 政策>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 5 (九州大)
-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張東翼, 2004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